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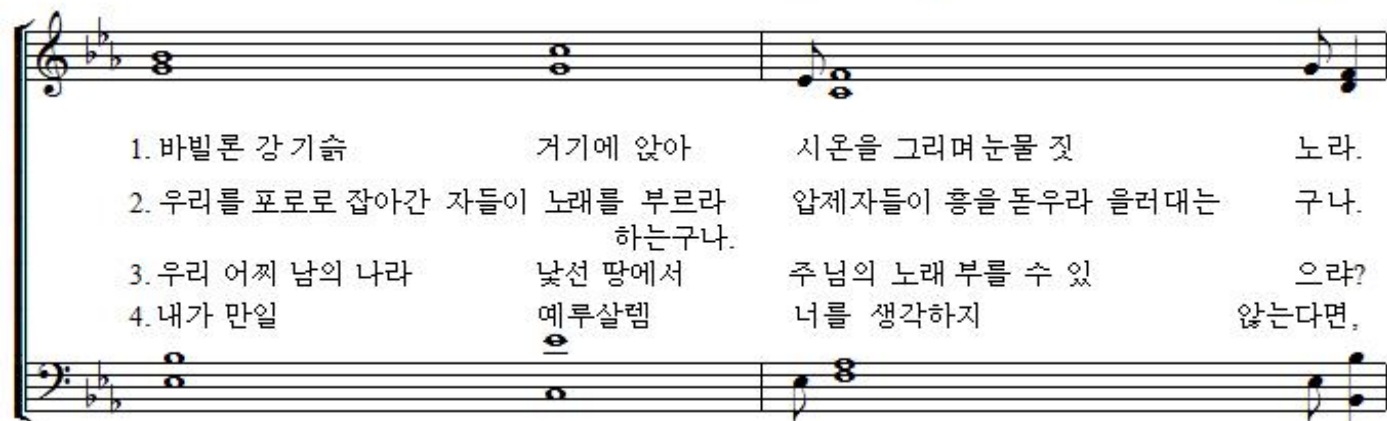
사순 제4주일

(2018. 3. 11.)

시편 137(136), 1-2, 3, 4, 5, 6 (© 6 L E)



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



1. 바빌론 강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 짓 노라.
2.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올려대는 구나.
3.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 부를 수 있 으랴?
4.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,



1. 그 언덕 버드나무 가 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 노라.
2. "시온의 노래를 불러. 라. 우리에게 한 가락 불러보 아라.
3. 예루살렘아, 너를 잊는 다면, 내 오른손이 굳어 버리 리라.
4.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 다면,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 리라.

복음환호송

요한
3.16 참조



(후렴) 말씀이 신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
하느님은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
외아들을 내 주시어, 생명을 얻게 하셨네.